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보내주신 과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어떤 식으로 글을 쓸지 고민을 하다가 단순히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규모 차이라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경제적 지표 등의 사전적인 조사보다는 지금 제가 뉴스라던가 각종 매체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에 따르는 해결방안 등을 소개하고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첨언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뉴스와 이미 나온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일본기업의 문제점**

현재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환경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틀 안에서 유발된 각각의 문제점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업들의 성장가능성을 막는 하나의 큰 원인으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자면 대기업의 경우, ‘自前主義’라고 말해지는,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부 자사내에서 직접해내려고 하는 경향과 지나치게 위험을 기피하는 기업풍토, 새로움을 겨냥한 사업 구상이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는 대기업들의 사업 환경은 기존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혁신과 성장에 있어서 독이 되었다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1]](#footnote-1)

이러한 것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계시장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위 10개의 글로벌 기업의 시가 총액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순위가 심하게 변동되었고, 기존의 점진적 성장을 해온 기업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급진적인 성장을 해온 회사-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능가하였으며, 총 기업가치 역시 큰 폭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일본은 이렇다 할 새로운 기업이 떠오르지 못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대기업이 대부분 계속적으로 상위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가치의 총액 또한 10년 전과 거의 같은 금액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일본의 기업환경은 대기업의 점진적인 성장이 중소기업-벤처기업을 포함한-들의 파격적인 성장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기존의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토양이라는 것, 다시말해 세계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악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footnote-2)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은 자금이나 규모의 차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생산성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지닌 기술력을 사업화하는 POC(ProotOf-Concept)의 부분-특히 사업의 채산성과 사업성-이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footnote-3) 물론 이외에도 해외에 비해 자본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과 우수한 인력들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4]](#footnote-4) 등등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업환경’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는 수요는 항상 변화하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던 작던간의 기술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업환경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IT**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각각 오픈 이노베이션과 중소기업의 IT화를 우선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은 대기업의 자전주의로 인한 경색되어 있는 기술적 혁신과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기위해 ‘외부의 아이디어를 자사의 인프라 또는 기존의 자산과 결합하여 내·외부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상용화하는 방법’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단순한 기술적 협력이 아니라 그 밖의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 등 비기술적인 부분의 협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자전주의를 통한 자사개발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회사 내부의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원 또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혁신화를 이뤄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IT화는 인력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다양한 부분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IT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은 단순히 ‘생산성’의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5]](#footnote-5) 그러나 앞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IT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IoT기술을 사용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존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니즈’를 예측하여 고객의 요구를 선점하는 것 또한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앞으로의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IT화는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선결과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또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다지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부분 말고도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많이 있고, 인재의 편중과 신규 기업에 대한 자본의 비접근성 등은 짧은 시간내에 고치기 힘든 문제일 것이며 그에 따르는 해결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IT회사에 다니게 되는 만큼 그에 관련된 관점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았고, 그 결과 생산성과 아이디어의 결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여서 관련된 뉴스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면서 일본의 기업의 대략적인 문화, 문제점 등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IT기업이 지니는 가치를 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보다 향상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항상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는 동력원이 될 것 같습니다. 미습하게 작성한 과제를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Nikkei XTech』, 「中小企業と大企業の最強タッグ、「下町ロケット」の世界は現実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鮫島正洋

   https://tech.nikkeibp.co.jp/atcl/nxt/column/18/00434/111200005/?P=1 [↑](#footnote-ref-1)
2. *Accenture Global Consumer Pulse Research https://www.slideshare.net/Accenture\_JP/ss-79754137* [↑](#footnote-ref-2)
3. 『livedoorNEWS』, 「中小企業ではまだ全体の1割程度…IT利活用の現状」, ニュースイッチ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5077022/ [↑](#footnote-ref-3)
4. *Kenji Kushida (2016), Japan 's Startup Ecosystem : From Brave New World to Part of Syncretic "New Japan", Stanford University, Freeman Spogli Institue for International Studies, Asian Research Policy, Vol. 7 No. 1, page (s) : 67-77* [↑](#footnote-ref-4)
5. [↑](#footnote-ref-5)